

## 동부시베리아 선사문화의 편년연구 —특히 구석기에서 신석기로의 전이문제에 대하여—

### 이 선 복

시베리아 중석기에 대한 연구가 일찌기 19세기 말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확인된 유적의 숫자는 제한되어 있으며 이 지역 중석기시대의 적용양식에 대한 이해는 아직 초보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동부시베리아지역에서 조사는 주로 바이칼호 연안지방과 레나강 종류역에 집중되었고, 극동과 연해주에서도 극소수의 유적이 보고되었다. 연바이칼지방의 중석기문화는 흔히 바다이유형, 베르흘렌스카야유형, 칸스키유형, 바이칼유형 등으로 분류되며, 레나강 유역의 중석기시대를 대표하는 소위 숨나긴문화의 자료들은 직전 단계의 후기 구석기문화의 내용을 계승하고 있다. 동부시베리아의 중석기는 후기 구석기 자료에 대비할 때 유물군 구성과 개개 유물의 특징에서 뚜렷한 문화적 전이현상을 보여주지 않으며, 구석기문화의 연속으로 지속된 점이 이 지역 중석기문화상의 특징이다. 구석기 요소의 지속현상은 후방기초의 불리한 기후조건 하에서 구석기 단계의 기술수준과 적용양식이 계속 유지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일 것이며, 불리한 환경조건과 이에서 비롯된 문화진화의 제한으로 이 지역의 중석기문화는 일종의 “역전된 환경포위” 내지 “주변부적 고립현상”을 보여준다.

### I. 서론

한국의 선사문화에 대한 근대적 연구가 시작된 이래 시베리아지방은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여겨져 왔다. 예를 들어 한국의 신석기문화가 시베리아에서 기원했다는 주장은 80년대 중반 이전까지 아무런 의심의 여지가 없는 학계의 정설로 받아들여졌고, 청동기문화의 성장 역시 시베리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여겨지고 있다(예: 김원용, 1986).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베리아의 고대문화에 대해 알고 있는 우리의 지식은 극히 제한적이고 단편적이다. 이러한 사정은 물론 그간의 정치적 환경에 그 일차적 책임이 있겠으며, 적어도 고고학에 관한 한 시베리아에 대한 연구수준은 시작을 위한 모색을 준비하는 단계에 불과하다.

일반적으로 시베리아 선사문화는 신석기시대에 접어들며 높은 지역적 다양성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는데, 한국 선사문화와의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것도 바로 신석기문화단계에서부터이다. 이러한 지역화된 시베리아 신석기문화의 대두란 그러나 어느날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신석기문화가 시작되기 수천년 전, 시베리아, 특히 동부시베리아의 종말기 구석기문화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수준과 내용의 기술을 바탕으로 광대한 지역에 걸쳐 유사한 문화상을 보여주며, 더 나아가 현재의 북중국, 한국, 일본지역의 수많은 수렵채집집단의 문화와도 유사한 내용이었다고 알려져 있다(Yi and Clark 1985).

구석기 종말기에 동질적인 기술수준과 내용의 문화를 영위하던 동북아시아의 광대한 지역에 흩어져 살던 집단들이 불과 수천년만에 고도로 상이한 내용의 문화상을 보여주는 것은, 후빙기 이후 동북아 일대의 환경적 동질성이 급속히 무너짐에 따라 각지의 수렵 채집 어로집단들이 취할 수 밖에 없었던 적응양식의 차별화/다양화/전문화 때문이었다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구석기와 신석기시대의 중간시기인 중석기시대 동안의 각지의 문화과정에 대한 이해는 토기 등장 이후 이 지역에서 문화적 다양성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이해함에 있어서 관건이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시베리아 동부지역에서 구석기단계의 문화가 신석기로 전이하는 과정을 고찰하려는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국내에 관련자료가 전무하다 해도 좋은 상황에서, 문헌자료수집과 유물유적의 실견이라는 준비작업을 위해 필자는 1991년도 7-8월 및 1-2월 총 모두 10주에 걸쳐 영국과 러시아의 여러 연구기관을 방문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준비작업에도 불구하고 본고가 원래의 목표에 얼마나 가깝게 다다를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일말의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본 연구를 비롯, 시베리아의 고고학 연구성과를 추적하려는 시도는 우선 그 지역의 광대함에서 압도되고 만다. 시베리아에서의 고고학 연구는 개발이 이루어진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몇몇 제한된 지역에서 이루어진 상태이다. 따라서 예를 들어 알타이지역이나 바이칼지역과 같이 몇몇 지역의 고고학적 문화내용이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알려졌다 해도, 그러한 지역과 지역 사이에는 아무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광대한 공백지대가 남아 있다. 따라서, 한 지역의 문화상과 다른 지역의 문화상이 어떠한 상호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추적한다는 것은 현재학자들에게도 매우 힘겨운 일이다. 지역의 광대함은 또한 각지의 연구기관과 연구자들로 하여금 지역할거주의적 경향을 지니게 만들었다. 그 결과, 일부인사들은 자신들의 연구지역의 문화적 특수성을 강조, 자기만의 독특한 용어를 고집하는 경향도 대두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현지학자들조차도 자신과 밀접한 교류가 없는 연구자들의 입장장을 정확히 파악,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 또한 소연방체제 붕괴 이후 야기된 사회 전반에 걸친 혼란으로 학자들 사이의 의견교환은 더욱 어려워진 듯하며, 80년대에 실시된 조사의 내용은 앞으로도 긴 시간이 지나야 발표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즉, 이러한 제반 사정으로 현지학자들에 의한 시베리아의 선사문화에 대한 통일된 설명의 등장도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다고 여겨진다.

또한 현지답사 도중 알게 된 사실이지만, 시베리아고고학은 1920년대 이래 연구방법론이나 이론 혹은 선사문화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크게 변화한 것이 없다고 보인다. 야외 현지조사나 연구실 작업은 지난 수십년 동안 고수된 진부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실 보고서나 논문의 내용 역시 매우 단조롭고 진부하다. 이러한 문제는 구소련의 다른 지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본고의 탐구대상인 중석기시대의 연구 역시 이러한 제약을 받고 있다. 유적발굴보고는 거의 예외없이 개개 유적과 유물군에 대한 단편적 기술에 그치고 있다. 연구 대상지역인 동부시베리아 각지에서의 후빙기 이래의 적응과정에 대한 체계적 탐구에 필요한 자료는 현지 사정상 가까운 시일 내에 제시되기 어려우리라고 예상된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본 연구의 주요과제로 삼았던 연구대상 각지에서의 중석기 문화과정, 즉, 유물에 반영된 후기구석기의 종말에서 신석기문화 등장 사이의 시기에 진행된 상이한 적응양식의 변화 발전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다는 것은 당분간 기대할 수 없는 목표임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본고는 현재까지 알려진 고고학 자료를 수합하여 편년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에서 만족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 역시 충분한 자료의 부재로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한편 본 연구의 과정에서는 기존 연구성과의 지역적 편중성에 못지 않게 지역에 따라 발표된 연구성과가 질적으로 큰 차이를 보여준다는 점도 문제거리였다. 예를 들어 아무르 유역이나 츄코트카지역에서 비록 오래 전부터 고고학 작업이 진행되어 왔다고는 하지만, 거의 모든 고고학 자료는 각종 <…소식>지에 신유적 발견소식의 형태로 단편적으로 소개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발견된 고고학 자료의 의미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해석하는 것은 모든 실물자료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이다.

결국 본 연구는 목표에서 뿐만 아니라 연구대상지역에 있어서도 크게 축소조정되지 않을 수 없었다. 즉, 본고는 시베리아 중석기문화 연구를 위한 시론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할 수 밖에 되었는데, 그간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 자료 역시 어느 정도 공개된 동부시베리아의 두 지역인 연(沿)바이칼지방과 아큐티야지방에서의 연구성과를 중심으로 동부시베리아의 중석기문화 편년과 그 문화적 특징을 점검함으로써 장차의 연구를 위한 모색을 꾀하는 것에 만족하게 되었다.

## II. 연구사

시베리아의 선사시대에 대한 연구는 제정 러시아시대 말, 이 지역에 추방된 지식인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연구는 아마츄어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으며, 어느 정도 체계적인 연구가 시작된 것은 19세기 말부터이다(Bader 외 1989: 1-10). 당시 선사시대에 대한 고고학적 관찰은 시베리아의 주도였던 이르쿠츠크시 일원을 중심으로 서서히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시베리아 중석기시대의 연구 역시 이 무렵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시베리아에서 발견된 최초의 중석기유적으로는 1881년 발견된 우스트-비류사(Ust'-Biryusa) 유적을 꼽고 있다. 이어 1883년에는 동부시베리아 중석기시대의 표준유적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유명한 베르홀렌스 카야산(山)(Verkhоленская Gora)유적이 이르쿠츠크시 교외에서 발견되었다.

시베리아의 고고학 연구는 10월 혁명 직후 저명한 고고학자인 페테르부르그과학원의 페트리(B. E. Petri)가 이르쿠츠크대학 역사학부에 부임하며 활기를 띠기 시작하는데, 중석기시대의 연구 역시 이를 계기로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그 결과, 1913년 바이칼호 동안에서의 울란-하다(Ulan-Khada) 유적의 발견을 시발로, 1920년대에는 바이칼호 서안 및 앙가라강 상류에서 많은 유적이 발견되었다. 또한 바이칼호 동안에서는 이 호수로 흘러 들어오는 셀렝가(Selenga) 강 유역에서 유적들이 발견되었다. 1920년대의 주요한 발견으

로는 페트리에 의한 짜리-데비짜(Zari-Deviza)유적, 게라시모프(M.M. Gerasimov)가 발견한 바다예(Badae)유적 및 호두키나(Ya. H. Khodukina)가 발견한 유수카네(Ushkane) 유적의 예를 들 수 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후기 구석기유적인 말타(Mal'ta)유적 역시 이 무렵 발견되었다. 또한 소스노프스키(G.P. Sosnovskii)에 의한 베르홀렌스카야산 유적의 첫 발굴조사 역시 이 시기에 이루어졌다(Bader 외 1989: 174).

1930년대와 40년대 동안 구소련에서 고고학 연구는 악명높은 스탈린의 피의 대숙청 및 제2차세계대전의 발발과 더불어 침체를 면치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시베리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으며, 시베리아의 중석기시대 연구 역시 부진을 면치 못하였다. 시베리아고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페트리가 30년 무렵 숙청, 살해된 여파로 고고학 활동은 급속히 위축되었으며, 이 시기의 중석기고고학 조사사업으로는 단지 게라시모프가 벨로이(Beloi)강 유역에서 소수의 유적을 조사한 사례 및 1932년 말타 유적의 발굴과정에서 중석기문화층이 확인된 것 정도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Bader 외 1989: 174). 게라시모프는 이러한 조사과정에서 벨로이강변의 유스트-벨로이(Ust'-Beloi)유적과 베르홀렌스카야산 유적이 소위 50미터 단구 속에서 형성된 것임을 확인, 이러한 지질학적 근거에서 두 유적을 동일시대로 편년하였다.

한편 장기간 부진을 면치 못하던 시베리아의 고고학 연구는 1950년대에 들어와 본격적인 개발사업이 추진되며 다시 활기를 되찾기 시작한다. 특히 노보시비르스크에 소련 과학원 시베리아분원이 설치되고 그 산하에 역사언어철학연구소가 세워지며 본격적인 고고학 야외조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이 연구소를 20년 이상 이끌어 온 오클라드니코프(A.P. Okladnikov)는 이곳을 레닌그라드나 모스크바의 고고학연구소에 버금가는 연구기관으로 키우기 위해 많은 애심찬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결과 50년대부터 주로 대 하천 유역을 중심으로 많은 유적발견보고가 나오기 시작했다(예: Okladnikov 1951, 1955, 1966). 이와 더불어 시베리아 각지의 중소도시에 설치된 노보시비르스크과학원의 분소들에서도 고고학조사사업이 서서히 시작되었다.

이러한 활발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재미있는 것은 오늘날까지도 동부시베리아에서 중석기시대에 관한 고고학적 정보는 주로 바이칼호 주변지역 및 레나강 중류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구소련의 중석기 연구상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Mesolit SSSR〉이란 책은 시베리아의 연구상황을 모두 21면에 걸쳐 소개하고 있는데, 시베리아의 이 두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그중 단지 5면만을 할애하고 있다. 이렇게 시베리아의 여타 지역에서 자료가 그리 알려지지 않은 것은 아마도 조사의 미진함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또한 이 시기에 해당하는 유적의 형성 및 보존과 관계되는 각종 지질학적 영력의 문제와도 관계되는 일이라 생각된다. 아울든 이 두 지역을 제외한 여타 지역에서 알려진 유적의 숫자는 손으로 꼽을 정도에서, 알려진 조사내용 역시 매우 단편적일 뿐이다.

연바이칼지방에서는 1957년 호로쉬흐(P.P. Khoroshikh)가 발견한 바다이 제1유적(Badai I )의 예와도 같이 학사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지니는 많은 유적들이 발견되었다 (Goryunova 1978). 이러한 발견은 60년대에도 계속되었는데, 1966년 메드베데프(G. G.

Medvedev)가 발견한 페레세예크(Perecheyek)나 체레무슈니크(Cheremushnik)와 같은 유적들은 20세기 전반기에 발견된 몇몇과 더불어 연바이칼지방의 중석기문화 편년 확립에 매우 중요한 근거를 제시해 주었다(Medvedev 외 1971, 1975). 1970년대 이래 지난 20년 동안 연바이칼지방에서의 중석기유적의 조사는 결국 이들 유적이 발견된 곳을 중심으로 계속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현지에서 관찰한 바로는 50년대 이래 발견된 이들 유적들은 오늘날까지도 간헐적으로 발굴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며, 하나의 유적은 처음 유물이 발견된 지점으로 중심으로 반경 수 km의 범위 내에 분포한 수개 내지 수십개의 지점으로 구성되고 있는 듯하다.

야쿠티야지방의 레나강중류역의 고고학 조사는 구소련 체제하에서 노보시비르스크파 학원 야쿠츠크분소의 고고학연구소를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오늘날은 독립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 연구소의 책임자인 모차노프(Yu. A. Mochanov)는 60년대부터 레나강과 이 강의 지류인 알단강 유역에서 활발한 조사를 전개하고 있다(예: Mochanov 1966, 1969).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그는 여러홍미있고 대담한 논문을 발표했다. 그의 주장중에는 고인류가 이러한 고위도지대에 등장한 것은 2백여만년 전이라는 것과도 같은 다소 횡당한 내용도 있지만(Mochanov 1988), 비주대륙으로의 인간이주에 대한 가설과 같이 학사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지니는 주장도 있다(Mochanov 1966).

중석기연구와 관계된 그의 중요한 업적은 상대적으로 제한된 범위의 이 지역에서 상당한 숫자의 유적을 발견, 그들 사이의 문화적 상관관계의 공통성을 추적하여 숨나긴문화(Sumnaginskaya kul'tura)라는 문화유형을 설정한 점이다(Mochoanov 1977). 그는 야쿠티야지방의 레나강, 알단강, 빌류아강, 암가강, 마야강, 비티마강, 올리엑마강 및 츄코트카지방의 인디기르카강, 콜리마강, 올리야강 등의 크고 작은 하천변에서 여러 개의 문화층을 지난 두터운 퇴적층으로 구성된 많은 유적을 발견하였다. 그는 북위 60도선에서 북극해안에 걸쳐 분포하는 이들 유적이 세석기(細石器)제작기술이나 석기유형에서 일련의 공통성을 보여 준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찰에서 그는 이 지역의 수렵채집인들은 대략 9천년 전 무렵부터 독특한 하나의 문화공동체를 이루었다고 생각, 이것을 숨나긴문화로 명명하였다.

이러한 그의 주장의 중요성은 이 숨나긴문화의 담당자들이 이후 독자적으로 토기를 제작, 신석기문화단계로 발전했다는 점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예를 들어 이 지역에서 토기가 정확히 어떤 맥락에서 등장하는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설명이 아직 나오지 못하고 있는 점과도 같이, 숨나긴문화가 중석기에서 신석기로의 독자적 발전과정을 겪은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세부적으로 밝혀져야 할 점들이 있는 듯하다.

한편, 한반도와 인접한 연해주지방에서 알려진 중석기유적의 수는 서넛 정도에 불과하다. 그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1954년 페트룬(B. E. Petrun)이 발견한 우스티노프카(Ustиновка)유적이며, 이외의 중석기유적으로는 오스노프카(Osinovka), 올레니 제1유적(Olenii I )을 들 수 있다(Bader 외 1989: 186). 이러한 유적의 발견에도 불구하고, 연해주의 중석기시대 문화상은 아직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은 또한 사할린과 카마카반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태평양 서안의

이 두 지역에서는 1960년대에 디코프(N.N. Dikov)에 의해 조사된 두 세개의 유적만이 알려져 있을 뿐이다(Bader 외 1989: 192-194). 이들에서 발견된 자료의 성격은 그리 분명치 않으나, 이곳에서 발견된 자료는 알래스카 에스키모족과 알류산열도의 알류트족의 기워과 관계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Dumond 1977).

각지에서의 연구성과를 종합해 보자면, 동부시베리아에서 현재까지 조사내용이 보고된 유적의 수는 80여 곳이라고 추정된다. 이들은 연바이칼지방과 레니강 중류지역에서 각각 대략 절반 정도씩 보고되었으며, 기타 극소수의 유적이 태평양연안과 도서지역에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하나의 유적으로 보고된 경우에도 실제로는 주변의 여러 지점이 포함될 수도 있다는 것은 전술한 바와 같다. 이물든 이러한 유적 보고사례는 연구지역의 광대함을 생각할 때 극히 회박한 분포밀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장차 많은 연구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 III. 동부시베리아 중석기문화 전개의 환경적 배경

우랄산맥 이동의 광대한 지역을 포괄하는 시베리아는 일반적으로 예니세이강을 경계로 동부와 서부지역으로 나뉘어 불리고 있다. 동부나 서부를 막론하고 시베리아는 일반인들에게 끌없는 동토지대를 연상시키지만, 실제로 오늘날의 식생분포에서 영구동토대, 즉 툰드라는 북극해연안의 좁은 지역에만 분포하고 있다. 겨울의 매서운 추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지역은 비슷한 위도의 북미지방과 마찬가지로 냉대침엽수림대에 속하고 있다. 동부시베리아에서 중석기유적이 집중적으로 발견된 연바이칼지방이나 레니강중류역 역시 이러한 침엽수림의 발달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하나의 식생대 내에서도 각자의 환경조건은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아마도 이 광대한 지역의 환경 조건에서 우리가 공통점을 뽑을 수 있다면 스텝지역이건, 삼림지역이건, 혹은 평원이건, 산지건 어디를 막론하고 이곳의 환경은 매우 불안정한 조건하에 있기 때문에, 환경요소의 약간의 변화에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며, 한번 파괴된 환경은 원상복구가 불능일 정도로 취약한 상태에 있다는 점일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구석기시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큰 변화없이 지속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Bader 외: 11-17 참조).

시베리아 중석기문화의 이해는 다른 어느 지역의 경우와도 마찬가지로 당대의 환경 조건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시베리아 혹은 동부시베리아 전체에 걸친 만족할 만한 고지리학 혹은 고환경학적 연구성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예를 들어 많은 유적이 발견된 레니강 중류역의 후빙기 환경에 대한 연구는 전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현재까지의 연구상과만을 볼 때, 시베리아 신생대 제4기(第四紀)의 환경변화에 대한 대표적 연구로는 쎄이틀린(S.M. Tseitlin)의 1979년도 저작을 들 수 있다. 시베리아 각지의 주요 지질 및 고고지점에 대한 지질층 위학적 평가에 기초한 제4기 말의 환경변화를 논하는 이 연구는 아직 충분치 못한 자료를 갖고 시베리아 전역에 대한 일반적 평

가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비판될 수 있다. 그러나 아놓든 여기에서 제시된 후빙기 아래 시베리아의 환경과정은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중요한 사실은, 시베리아에서 약 1만년 전의 후빙기의 시작이 즉각적인 기후의 온난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후술하겠지만 이 사실은 시베리아 중석기 문화의 성격을 이해함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된다. 후빙기의 첫 2천년 동안 시베리아 대부분의 지역의 기후는 아직도 빙하기적 조건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조건 이었다고 한다. 이러한 기후는 약 8천년 전 아틀란틱(Atlantic)기의 시작과 더불어 상당히 호전되지만, 약 3,500년 전과 2,500년 전을 전후해 다시 얼마 동안 한랭한 기후조건 하에 놓이게 된다. 그런데 이 글의 목적과 관계되어 중요한 것은 후빙기 개시기인 선(先)보리알(Pre-boreal)기와 보리알(Boreal)기의 기후가 얼마나 한랭했는가 하는 점일 것이다.

당시 기후의 한랭도는 지질층에서 보이는 소위 polygonal structure를 비롯한 각종 동토지질현상과 관계된 증거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 시기에 형성된 이들 각종 cryogenic feature들은 흔히 빙하기 극성기의 그것들보다는 물론 소규모이나 오늘날 형성되는 것들보다는 월등히 발달된 것이라고 한다. 선보리알기와 보리알기의 퇴적층에서는 토양물질 내에서의 얼음조각의 축적으로 토양은 약하게 발달하고 있고, 사면퇴적물은 특징적으로 모래나 모래질 그루스(grus)로 구성되어 있다. 당대의 환경에서 삼림의 발달과 관계된 흔적은 찾아보기 힘들며, 토양 퇴적층 내에서 동물활동과 관계된 흔적은 거의 찾을 수 없다고 한다. 결국 당대의 환경은 빙하기보다는 약간 나아지진 했으나, 현재보다 매우 춥고 건조한 기후가 지배했던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후조건은 아틀란틱기(8,000-6,000 BP)의 시작과 더불어 급속히 호전되기 시작한다. 각지에서는 삼림의 확대와 더불어 토양 형성이 완성해지며 토양층 내에 각종 동물이 서식하기 시작한다. 토양발달은 6,500 BP 부터 매우 활발해지는데, 이때 형성된 매우 두텁고 짙은 색조의 유기물층이 곳곳에서 확인된다. 삼림의 확대 역시 이 무렵 최고조에 달하는데, 회분 분포도에서 수목류의 꽃가루가 50% 이상을 차지한다. 그러나 물론 이 당시의 식생은 냉대성 식물이 주종을 차지하고 있는데, 당시의 가장 주요한 수종은 자작나무였다. 이 무렵이 시베리아에서 후빙기 동안 기후가 가장 온난했던 때라고 할 수 있다. 중석기에서 신석기로의 전이의 시점이 모든 곳에서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이 아틀란틱기 종말기의 기후온난화과정은 중석기에서 신석기로의 전이과정과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결국 이 지역의 중석기문화는 플라이스토세 말기 아래의 한랭한 환경 조건이 크게 변화하지 않는 상황에서 종래의 적용양식이 지속되며 유지된 문화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은 즉 이곳의 중석기문화는 후구석기(後舊石器; epi-palaeolithic)의 개념이 가장 잘 적용될 수 있는 문화양식이라는 뜻이다. 이 지역의 신석기문화가 토기 사용이라는 특징을 제외한다면 석기의 제작이나 장기적 주거지의 부재 등 여러 측면에서 과거의 수렵채집양식이 고수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비록 환경조건이 호전되었을지라도 구석기시대 말 아래 이 지역에서 유지된 적용양식이 얼마나 효율적이었는가를 보여준

다고 하겠다.

## IV. 각지 중석기문화의 정형

### 1. 연바이칼지방

#### (1) 바다이유형

연바이칼지방에서 알려진 중석기시대의 유적으로서, 조사내용이 어떠한 형식으로 전 보고된 유적의 총수는 50개소 남짓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중에서도 특히 양가라강의 지류인 벨라야간 유역에서 알려진 몇몇 유적들은 비교적 최근에 조사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좋은 층위상태로 인해 이 지역 중석기문화의 성격과 편년 연구의 핵심자료가 되고 있다. 이르쿠츠크에서 북서쪽으로 약 60km 정도 떨어진 벨라야강과 양가라강의 합류지점에 위치한 말타읍에서 서쪽으로 강을 거슬러 올라가며, 강의 연안을 따라 수십 km의 범위에 걸쳐서는 소스노비 보르(Sosnovii Bor), 우스트-벨라야(Ust'-Belaya), 바다이제1유적, 폐례세예크, 체레무슈니크, 말타, 말틴카(Mal'tinka), 카멘니(Kanen'), 카메놀롬냐(Kamenolomnya) 등의 중요 유적들이 발견되었다(Medvedev 외 1975). 이를 유적은 하나의 하천을 따라서 발견되고 있는바, 유적에 따라 문화층의 숫자나 두께 혹은 층위 구성물질에서 차이가 있지만, 중석기문화층이 발견되는 지질학적 퇴적층의 성격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현지에서 실견한 바와 발굴보고에 기초해 평가할 때, 이들 유적은 말타의 예와도 같이 중석기문화층 아래에 두터운 후기구석기 문화층이 계속되는 것들과 중석기문화층이 최하부문화층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들이 있지만, 그 어느 경우에도 중석기문화층은 시베리아 최후의 빙하기인 사르탄(Sartan)빙하기에 하천 퇴적층 내에서 발견되고 있다. 중석기퇴적층 위로 계속 퇴적물질이 쌓인 경우에는 대개 바람에 의한 사구(砂丘)퇴적이 중석기문화층을 덮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현지학자들의 말에 따르자면 이들 모래층은 아틀란티기의 퇴적층으로 생각되고 있다고 하며, 만약 이것이 올바른 평가라면 당시 이곳 시베리아 대륙의 기후는 세계의 다른 지역과는 달리 매우 건조했다고 추정할 수 있으며, 이곳에서 중석기문화층과 신석기문화층이 층위적으로 연속되어 발견되지 않는 것은 이러한 환경조건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벨라야강 연안의 단구성 퇴적층 내에서 발견되는 중석기문화층의 두께는 구석기문화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얕아, 개중에는 하나의 독립층이 중석기문화층을 구성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몇 개의 문화층으로 구성된 예도 없지 않다. 중석기문화층이 중첩되어 발견된 대표적 유적으로는 소스노비보르와 우스트-벨라야 유적을 들 수 있다. 이 두 유적은 이 일대의 중석기유적 연구에 있어서 일종의 표준유적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들을 비롯한 벨라야강유역의 중석기유적에서는 박편세석기의 우세현상이 알려져 있

다. 특히 흔히 스크레복(skrebo)과 스크레블로(skreblo)라 불리는 소형 및 대형 긁개(scraper)에서 나타나는 형태상의 일련의 공통적 특징은 이 일대의 유적이 기본적으로 동일한 유형의 문화에 속한다는 주장의 중요한 근거이다(Bader 외 1989: 174-185). 그렇지만 이것은 이들이 상대적으로 좁은 지역 내에 밀집해 있다는 점에서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닐 것이다. 아울든 벨라야강 연안의 여러 유적들은 대개 하나의 문화유형으로 취급되고 있는데, 이 지역에서 가장 먼저 발견된 바다이유적의 이름을 따 바다이유형이라 불린다. 바다이유형에 속하는 중석기유적을 대표하는 상기 두 유적의 성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소스노비 보르 유적은 벨라야강의 현재 하상면에서 약 22-24미터 정도 높이에 발달한 단구층의 상부에 위치해 있다. 현장에서 관찰한 바로는 이 지역 일대의 기반암인 돌로마이트에 형성된 싱크 홀의 발달로 단구 퇴적층은 매우 복잡한 층리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 유적은 1966년 발견되었으며, 67년에서 71년에 걸쳐 발굴되었다(Medvedev 외 1971; Lezhnenko 외 1982). 단구 퇴적층 내에서 확인된 3개의 문화층에서 위의 두 문화층이 중석기문화층으로 밝혀졌다.

제2층, 즉 하부 중석기문화층에서는 석기와 동물뼈를 비롯해 모두 46,500점의 자료가 수습되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보고된 유물의 숫자는 국소수에 불과하다. 유물에 대한 보고중 흥미있는 자료는 세석인석핵(細石刃石核)에 대한 분류이다. 여기에서는 쇄기형, 프리즘형, 원추형, 반원추형 등 각종 형태의 석핵이 발견되었다 한다. 구석기문화층에서 알려진 석핵의 종류가 두셋에 불과한데 비해 이렇게 다양한 석핵들이 발견된다는 점은 아마도 새로운 종류의 석기제작의 필요성, 즉 새로운 적응전략의 대두을 의미하는 것겠지만, 세석인의 제작기법과 관계된 자세한 사항은 보고되지 않았다. 동물뼈의 감정에 기초해, 보고자들은 이 문화층의 담당자들에게 어로생활은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제3문화층, 즉 상부중석기층은 토양구성상으로는 A, V, B, G의 네 단위로 구분된다 고 하며, 무려 51만 5천점의 자료가 수습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자료중에는 침엽수림지대에 서식하는 각종 동물과 물고기뼈 다수가 있다고 하지만, 모든 유물의 정확한 계량적 자료는 발표되지 않았다. 석기의 종류도 매우 다양하다고 하는데, 보고에서 특히 중요하게 취급된 자료는 스크레복(skrebo)과 스크레블로(skreblo)류들이다. 그러나 보고자들은 이들이 유물군 구성의 기능적 특징과 어떠한 상관관계에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풍부한 자료를 안고 있는 것 만큼은 틀림없으나 그 자세한 내용과 문화적 특징에 대한 설명이 민족스럽지 못한 것은 소스노비보르유적에만 국한된 사정은 아니다. 우스트-벨라야유적의 경우에도 유적의 성격은 매우 복잡한 듯하나 많은 세부사항이 불분명한 상태이다.

1920년 이 유적을 발견한 게라시모프에 의해 1934년 처음 발굴된 이래, 우스트-벨라야유적은 57년과 60년 및 61년에서 64년에 걸쳐 발굴되었다(Medvedev dhi 1971). 퇴적층 내에서는 모두 16개의 문화층이 확인되었다 하며, 제16층에서 11층이 중석기문화층

이라 한다. 1971년의 보고에서 중석기문화총은 크게 3개의 단계로 묶어 설명되었는데, 가장 이른 단계의 중석기는 제16-14층이, 다음 단계는 13-12층이, 그리고 그 위의 문화총들이 최후 단계의 중석기문화를 대표한다고 한다. 제1단계의 문화총들이 하부에 위치한 관계로 이들의 발굴면적은 250m<sup>2</sup>에 불과하나, 1층에서 13층까지는 900m<sup>2</sup>의 범위에 걸쳐 발굴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각층에서는 작게는 수천점에서 많게는 수십만점에 달하는 자료가 수습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여러 층에서 발견된 유물중에서 보고자들이 역점을 두어 설명하고 있는 것은 역시 석핵과 몇몇 소형석기들의 특징에 대한 점이다. 특히 흥미있는 점은 후술할 베르홀렌스카야산유형새기개(Verkholenskaya Goratype burin)라 불리는 석기가 이른 시기의 문화총에서 발견된 것이다. 이의 발견으로 바다이유형은 베르홀렌스카야산유형과 나누어 볼 것이 아니라 하나로 묶어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 (2) 베르홀렌스카야유형

바다이유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르쿠츠크시 부근의 앙가라강 유역에서 발견된 몇몇 유적의 중석기문화총들은 석기의 형태와 구성에 있어서 높은 공통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공통성에서 이들 유적은 흔히 베르홀렌스카야유형이라고 명명되고 있다. 그러나 이 유형에 속하는 유적으로는 베르홀렌스카야산유적과 리시하(Lisikha)유적 및 짜리-데비짜유적만이 있을 뿐이다(Lezhnenko 1980; Svinin 1980; Georgievskii, Medvedev 1980).

베르홀렌스카야유형에 소속되는 유적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가장 중요한 유물은 소위 베르홀렌스카야산유형새기개라 불리는 독특한 형태의 석기이다. 또한 이 석기와 거의 동일한 제작수법과 형태의 석기가 일본 나이카타 부근의 아라야(荒屋)유적에서 50년대 말 발견된 이래, 이 문화유형은 시베리아의 학자들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후기구석기에 관심있는 모든 학자들에게 매우 흥미있는 연구의 대상이 되었다. 일본에서 발견된 석기는 보통 아라야 뷔랭(Araya burin)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이것과 베르홀렌스카야산 유형새기개는 transverse burin의 일종이라서, 양자 사이의 동질성은 아라야유적의 발견과 더불어 곧 널리 알려졌다. 이 석기는 이후 소위 쇄기형석핵과 더불어 시베리아와 동북아시아 기타 지역 사이의 문화적 상관관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증거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시베리아에서 이 베르홀렌스카야산유형새기개는 바이칼호 주변의 남부시베리아에서만 발견되었을 뿐이다. 현재의 자료로는 서로 멀리 떨어진 두 지역에서 이러한 석기가 등장하는 것을 문화전파의 결과로 생각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그렇다면 문제는 양 지역을 접유했던 집단 사이에 어떠한 공통된 적응전략이 있었기에 이러한 석기가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인가 하는 점이나, 이에 대해서는 아직 무어라 말하기 어려우며, 또한 이것이 바다이유형 유적의 이른 시기 문화총에서는 발견되지만 늦은 시기의 층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이유 역시 앞으로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베르홀렌스카야산유적은 시베리아고고학에 관심이 있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그 이름을 들어보았을 정도로 아마도 시베리아에서 가장 유명한 유적일 것이다. 이 유적 역시 구석기시대 말에서 중석기시대에 걸쳐 형성된 복합유적이다. 유적은 이르쿠츠크 동쪽 교외의 한 나지박한 야산인 베르홀렌스카야산 정상부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다. 이 유적은 다른 많은 유적들과 마찬가지로 넓은 범위에 걸쳐 형성되어 있으며, 60년대에 들어와 이미 알려진 제1지점에서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떨어진 제2지점이 새로 조사되었다(Aksenov, Shm'gun 1974).

중석기문화층에서 발견된 동물화석은 플라이스토세 말기의 빙하기환경에서 흔히 보이는 맘모스나 순록, 텁코뿔소, 말등을 비롯한 소위 맘모스복합동물상(mammoth complex fauna)으로서, 후빙기 이후의 기후조건이 아직도 상당히 한랭하였음을 밝혀 준다. 이 유적을 처음 조사한 폐트리는 특히 세석인석핵과 소형 굽개류의 형태적 특징이 유럽 후기구석기문화의 유물과 비견할만하다고 보아 이 유적을 마그달레나안문화유적으로 생각했지만, 오늘날 이 유적은 시베리아의 대표적 중석기유적으로 여겨지고 있다(Aksenov 1980).

양가라강을 따라 해발고도 70-80미터를 따라 발달한 단구 퇴적층의 최상부 퇴적층 내에 위치한 이 유적은 하상으로부터 약 23-28미터 정도 높이에 형성되었다. 이 유적은 1883년 옵친니코프(M.P. Obchinnikov)와 엘레네프(A.C.Yelenev)에 의해 처음 발견된 이래, 1919년에서 28년에 걸친 폐트리의 발굴을 비롯, 1959년과 1963-68년에 걸쳐 이르쿠츠크대학이 발굴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성과가 얻어진 것은 그 내용이 악세노프에 의해 1980년 소개된 1977년의 마지막 발굴이다.

제1지점에서의 발굴은 발굴면적이 225㎡에 불과한 소규모였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층 사이의 층위관계가 확실히 밝혀졌다. 발굴 결과 이 지점에는 3개의 문화층이 존재함이 밝혀졌으며, 최하층에서는 노지에서 발견된 목탄을 시료로 한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에서 12570+180 BP(MO-441)의 측정치가 얻어져, 이 층의 연대는 기원전 11,000년기로 설정되었고, 그 위의 중간층과 최상층은 각각 기원전 9천년기와 7천년기로 편년되었다. 아마도 이러한 편년은 오늘날까지도 연바이칼지방의 중석기문화에 대한 가장 객관적인 증거에 입각한 편년안이 아닌가 여겨진다.

한편 제2지점에서는 최하의 중석기문화층에서 시작하여 모두 5개의 문화층이 확인되었다. 이 지점의 층위는 각종 지질운동으로 인해 제1지점보다 훨씬 더 복잡한 양상인데, solifluction과 cryoturbation process의 영향으로 심한 교란을 입었다. 따라서 베르홀렌스카야산유적의 성격에 대한 논의는 흔히 제1지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비록 이 유적이 중석기유적이라고 다뤄지고 있지만, 기원전 11,000년기의 연대는 분명히 플라이스토세의 연대이며, 따라서 하부문화층을 중석기로 부를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이르쿠츠크대학을 중심으로 한 시베리아의 연구자들은 최하층과 그 층들은 기본적으로 연속적이며 동질적 내용의 문화상을 보여준다는 이유를 들어 그렇게 불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Bader 외 1989:182-183).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사실 구석기시대와 중석기시대의 분기는 지질학적 시대구분을 따

른다. 즉 플라이스토세와 홀로세의 경계로 설정한다고 하는 보편적 정의에서 어긋나는 것이다. 이러한 이르쿠츠크대학측의 의견에 대해서는 많은 러시아학자들이 반대하고 있으며(예 : Vasilyev ms), 사실 그러한 반대의견은 타당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역에서의 중석기문화의 발생과 편년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리라 여겨진다.

최하층을 비롯, 이 유적의 중석기문화층에서는 대개 노지들이 발견되고 있으며, 유물은 노지를 중심으로 집중분포하고 있다. 또한 유물들의 보존상태와 수직분포의 특징에서 이들은 재퇴적되었거나 ‘구른’(rolled) 유물은 아님이 확실하다고 보고자들은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위의 교란으로 상당수의 유물이 과연 확실히 어떤 문화층에서 유래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듯하다.

### (3) 칸스키유형

1959년 마시멘코프(G. A. Maksimenkov)는 이르쿠츠크에서 서북으로 400km가량 떨어진 앙가라강의 지류인 칸강변의 한 작은 부락인 칸스크 근처의 스트리조바산(Strizhova Gora)에서 베르홀렌스카야산유적에서 발견된 석기들과 유사한 석기라고 보이는 일련의 유물을 수습하였다. 1972년에서 76년에 걸쳐 실시된 이르쿠츠크대학에 의한 이 일대의 조사에서는 이곳에서 약 50km 떨어진 카자치카(Kazachika)에서도 유사한 유물을 수습되었고, 다시 근처에서 우스트-코바(Ust'-Kova)유적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이르쿠츠크조사단은 이들 유적의 유물군은 이르쿠츠크 근처의 그것들과는 달리 대형 박면석기가 상대적으로 많다고 보고했으며, 따라서 이들을 칸스키(Kanskii)유형이라는 새로운 문화유형의 유적으로 명명했다(Svinin 1980; Aksenov 1982). 그러나 칸스키유형이란 극소수의 유적에 대한 정보만으로 설정된 개념으로서, 역시 용어사용의 타당성에 대한 시비가 있을 수 있다.

스트리조바산유적의 여러 문화층 중 중석기층은 제3층에서 제17층에 걸친다고 하는데, 이들 문화층은 다시 4-7층, 8-13층 및 14-17층으로 이루어진 세 단계의 문화기로 구성된다고 한다. 제1단계인 14-17층에서 수습된 자료는 특히 동물뼈가 압도적이라는 점이 특징적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맘보스나 순록과 같은 대형동물의 보다는 삼림서식성 소형동물의 뼈들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현상이 전적으로 기후 조건이 호전되었기 때문인지, 혹은 유적 주변이 특별히 ‘보호된’ 환경조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인지는 분명치 않다. 제1단계에 비해 제2단계에서는 스크레복을 위시한 소형석기 및 끌각기가 두드러지게 증가한다. 물고기뼈 역시 상당수 발견되었다고 하며, 막시멘코프가 이 유적을 베르홀렌스카야산유적과 유사하다고 본 자료인 전형적인 쇄기형 석핵과 베르홀렌스카야산유형새기개도 소량이나마 이 제2기의 문화층에서 수습되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제3기의 문화층은 세석인 및 이를 가공한 석기 혹은 이를 덧붙여 사용한 복합도구의 증가가 현저하다고 보고되었다. 반면 대형 스크레블로의 숫자는 격감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다소 소형동물의 뼈가 증가하는 현상과 같이 관찰된다는 점에서 생계전략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듯하다.

#### (4) 바이칼유형

바이칼호수의 연안을 따라서는 울란-하다를 비롯한 많은 중석기유적들이 시베리아고고학의 초창기부터 알려지기 시작했다. 중석기유적은 급격한 산록면으로 구성된 바이칼호 동안에서는 알려진 것이 없으며 단지 서안을 따라 발견되고 있다. 울란-하다 이외의 중요유적으로는 베블로가(Berloga), 사르마(Sarma), 로가트카(Rogatka), 쿠룰라(Kurla) 제1-4유적, 루다리(Ludari), 부글리데이카(Bugulideika), 사간-누가(Sagan-Nuga), 카라가나(Karagana)를 비롯, 많은 유적들이 조사되었다. 비록 많은 유적의 발굴보고서가 아직 미간이지만, 이러한 조사의 결과 바이칼호 주변지역 일대에서 설정된 중석기 문화유형 가운데 바이칼유형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실체를 지닌 문화유형으로 여겨지고 있다 (Aksenov 1974, 1980, 1982; Aksenov, Lynsha, Shunkov 1975; Aksenov, Shm'gun 1974; Medvedev 외 1971, 1975).

바이칼호는 지구 최대규모의 남수량으로 유명한 호수이다. 이 호수의 형성과 관계된 지질학적 배경은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호수의 형성은 제4기 말의 지구조운동(地構造運動)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그리 오래전에 만들어 진 것은 아니라고 알려져 있다. 현지학자들과의 의견교환 과정에서 들은 사실이지만, 후빙기 아래의 호수면 상승으로 호수가에는 플라이스토세의 퇴적층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하며, 따라서 구석기유적을 발견 할 가능성은 없다고 한다. 호수가의 산록면을 따라 발달한 홀로세 퇴적층의 두께는 수 내지 십여미터에 달하며, 재퇴적층과 *in situ weathering*에 의한 고토양층이 혼재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한다. 따라서 퇴적층의 층위는 매우 복잡한 것이 상례라고 한다.

전술한 이르쿠츠크대학측이 확립한 자신들 고유의 중석기시대에 대한 정의는 사실 바이칼지역에서의 집중조사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할 수 있다. 시베리아지역의 연구자들이 중석기시대라는 용어를 널리 사용하기 시작한 6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사실 중석기유적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유적은 극소수에 불과했고 이들은 대부분 바이칼호 연안에서 발견된 것이었다. 이때 중석기유적인가 아닌가의 여부는 고고학적 증거나 편년자료에 입각한 것이기 보다는 주로 동물뼈에서 유추된 생계 경제 양식에서의 변화를 기준으로 한 것이었으며, 지질학적 자료에 기초한 플라이스토세와 홀로세의 층위적 구분이나 쇄기형 석핵이나 양면가공석기의 유무여부 등의 고고학적 자료는 부차적 증거로 다루어졌다.

그러나 바이칼지방에서 그렇게 정의된 중석기유적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며, 종래의 정의에 따르자면 중석기유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유적들의 실제 연대가 플라이스토세로 올라가는 예들이 알려지기 시작했을 뿐더러, 그와는 반대로 토기가 등장하는 ‘중석기’ 유적들도 발견되기 시작, 중석기시대의 개념에 일대 혼란이 일기 시작했다. 이러한 혼란은 물론 시베리아의 연구자들도 잘 인지하고 있지만, 종래의 관행에서 비롯된 중석기시대의 정의를 의사소통의 편의를 위해 계속 고수하고 있는 듯 여겨진다(Bader 외 1989 : 174-184). 그러나 물론 토기가 등장하는 경우를 중석기시대로 보는 것은 많은 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토기가 발견되는 ‘중석기’문화층이나 유적만큼은 신석기시대로 다루고 있는 듯하다.

중석기시대라는 개념에 대한 이러한 모호한 입장은 많은 문제를 낳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세석기의 다양화와 양적 증가 및 이와 연관된 생계양식의 변화는 일부 유적에서 는 이미 2만년전부터 일어나기 시작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유적을 중석기유적이라고 부르기 시작한다면 기원전 1만년대의 시기가 구석기시대와 중석기시대에 동시에 속하게 된다는 모순이 있게 된다. 또한 일부 유적에서 토기는 이미 8,000 BP에 등장하는 반면, 어떤 유적에서는 5,000 BP까지도 토기가 발견되지 않는데, 전자를 신석기유적, 후자를 중석기유적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도 큰 모순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이 지역에서의 고고학 연구가 안고 있는 기본문제들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염두에 두고, 아래에서는 바이칼유형의 특징을 사간-누가 및 올란-하나 유적의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살펴 보겠다. 그런데, 이 두 유적의 경우 모두 80년대에 들어와 새로운 발굴이 실시되어 방대한 자료가 얻어졌으나, 그 내용은 아직 정리되고되지 않았다. 이러한 최신의 조사내용은 단지 <Mesolit SSSR>에 간략히 소개되었을 뿐이며, 발굴보고로서는 1980년과 82년 간행된 두 권의 책자가 마지막이다(Medvedev 1980; Akse-nov, Medvedev 1982). 아래의 간략한 정리는 이러한 문헌자료와 현지에서의 관찰을 토대로 한 것인바, 자료의 미공개로 세부사항에서 틀린 점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유적의 개략적 성격 과악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사간-누가 유적은 1913년 처음 발견된 이래 수많은 유물이 수습되었고, 처음에는 신석기시대의 유적으로 추정되었다고 한다. 레닌그라드과학원 조사단에 의한 1959년의 첫 발굴은 유적의 동편과 서편 두 곳에서 이루어졌는데, 농쪽지점의 조사에서 문화적 층위 관계를 잘 알아볼 수 있었다. 그러나 자세한 층위연구는 1982년 이루어졌으며, 유적의 퇴적층은 모두 5개의 홀로세 토양군으로 구성되었음이 인지되었다. 1983년 이르크추크 대학조사단에 의한 재발굴에서 11개의 문화층이 확인되었는데, 중석기시대에서 철기시대에 이르는 이들 문화층에서 가장 잘 보존된 것은 중석기층으로서 이들은 상기 5개의 토양군 중 아래에서 두번째 토양군을 이루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중석기문화층은 다시 두 군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11-8층이 전형적인 중석기문화층이며, 제7-6층은 후기 중석기문화층이다. 후기층에서는 여러개의 노지가 발견되었다. 문화층에서 발견된 동물뼈에는 사슴이나 염소를 비롯한 육지동물 이외에도 각종 물고기 및 물개의 뼈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아마도 이러한 상이한 종류의 식량자원들은 계절에 따라 이용되었으리라 짐작되고 있다. 전형적인 중석기문화층에서는 특징적으로 프리즘형 석인(石刃) 및 이를 모재로 제작된 각종 도구가 전체 유물의 40%-5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특별한 형태의 도구로 가공되지 않은 석인의 경우에도 한쪽 날을 따라서 가공한 흔적이 많이 남아 있어, 이들이 나무나 뼈의 가공을 위시한 각종 목적의 복합도구의 제작에 사용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외에도 프리즘형 세석인석핵과 쪘기 형석핵 및 대형 석인도 다량 발견되었으며, 새기개로 사용되었으리라고 짐작되는 끌 모양의 석기와 뼈바늘도 상당수 존재한다. 시대가 내려오며 중석기문화층에서는 프리즘형 석인의 숫자가 증가하며 크기도 소형화하는데, 최말리층에서는 이것이 전체유물의 60% 가까이를 차지한다. 한편 마연기법으로 제작된 도끼들이 서서히 등장하기 시작하여 신

석기시대의 도래를 예고하기 시작하는데, 최초의 신석기문화층과 쇠말기 중석기층은 층 위학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연속관계에 있음이 분명하다고 한다.

1912년 실시된 울란-하다유적의 발굴은 시베리아 최초의 발굴이라는 학사적 의의를 지니고 있는데, 그라노프(M. P. Gryanov)는 1954년에서 74년에 걸쳐 이르쿠츠크대학 조사단을 이끌고 이곳을 조사하였다. 이 유적은 중석기문화층 뿐만 아니라 철기시대에 이르기까지 11개의 문화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라노프는 이 유적의 발굴을 통해 시베리아 청동기문화에 대한 기본체계를 제시한 것으로 유명하다. 중석기문화층은 1982년에 마지막 조사가 이루어졌다.

울란-하다유적이 사간-누가에서 몇 km 떨어져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적의 중석기문화층에서 발견된 유물은 거의 전적으로 세석인 및 이를 꽂아 쓰기 위한 흄이 있는 뼈나 뿔만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특징에서 조사자들은 이 유적을 사간-누가유적 주민의 야외캠프유적으로 다루는 경향이 있다. 이 두 유적 사이의 이러한 관계는 이들의 경우에만 그치는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계절에 따른 상이한 생계자원의 이용을 위한 계절적 이동과 특정목적 수행을 위한 소규모 집단을 조직하는 일은 수렵채집집단에게는 보편적인 현상이므로 바이칼호를 따라서도 이러한 상이한 기능의 수행을 위한 상이한 규모와 성격의 유적들이 발견될 것은 당연할 것이다. 아마도 사간-누가의 부속유적으로서의 울란-하다에 대한 평가와도 같은 예는 장차 이 지역 고고학 연구에 있어서 바람직한 방향을 시사해준다고 생각된다.

## 2. 숨나긴문화

레나강 중류와 그 지류 유역에서는 60년대 말 아래 활발한 고고학 조사사업이 실시되었다. 이곳에서 발견된 중요한 중석기유적으로는 레나강 본류의 볼샤야 세베르나야(Bol'shaya Severnaya), 우스트-치르쿠오(Ust'-Chirkuo), 투류트(Tyoryut) 제1지점, 쿨라티(Kullaty), 아트-다반(At-Daban), 토칠나야(To-chil'naya), 뉴야(Nyuya) 유적 등을 꼽을 수 있다. 알단강 유역에서는 벨하치(Bel'khachi) 제1유역, 우스트-팀프تون(Ust'-Timpton), 숨나긴(Sumnagin) 제1, 제2유적, 티물루트(Timulur), 알라사르다흐(Alysardakh), 둑타이(Dyuktay) 동굴, 빌리르(Bilir), 야김드쟈(Yakimdzha) 제2유적이 알려져 있으며, 태평양 연안에서도 이들 유적에서 발견된 것과 유사한 내용의 중석기유물이 암카(Amka) 유적에서 알려졌다. 한편 북극해로 흘러 들어가는 인디기르카강 하구 근처에서도 판텔레이하(Panteleikha) 제1-7유적이 발견되었는데, 이들은 현재까지 알려진 중석기시대의 유적으로서는 위도상 가장 북쪽에 위치한 유적이다. 또한 아시아대륙의 죄동북단에 위치한 측지반도에서는 콜리마강의 상류역에서 시베르-디고프스카야(Siber-dikovskaya), 콩고(Kongo), 말탄(Maltan) 유적이 발견되었다. 한편 비록 매우 단편적인 내용만이 보고되었지만, 카마카반도에서는 우유코프스키유적군(Ushkovskye stoyinki)이라 불리는 몇 유적이 알려져 있고, 사할린섬에서도 임친(Imchin) 제1, 2유적과 타코에 제2유적이 발견되었다(Beder dhl 1989 : 187-194)

이러한 일련의 유적에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레나강과 알단강유역 및 콜리마강 하류에서 발견된 일련의 유적들이다. 모차노프가 숨나긴 유적의 이름을 따 숨나긴문화라 명명한 이들의 물질문화의 내용은 이 지역 후기구석기문화인 둑타이문화의 물질문화의 전통을 이어받고 이보다 한 단계 발전한 문화상을 보여준다고 주장되고 있다 (Mochanov 1977).

숨나긴문화의 양상은 벨하치 제1유적에서 가장 잘 드러나고 있다(Mochanov 1969, 1977). 1964년 발견된 이 유적은 알단강의 지류인 울라한-엘계(Ulakhan-El'gyc) 강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알단강 유역의 대소하천을 따라 하상비고 11-14.5 m의 비교에 발달한 하단단구퇴적층 내에서 발견되었다. 모차노프는 발굴을 통해 29개의 문화층을 확인하였는데, 16개의 문화층이 숨나긴문화층에 속한다고 결론지었다. 이 유적은 시베리아의 중석기유적 가운데에서 가장 충실한 연대측정이 이루어진 유적이다. 모두 269,000점의 유물이 발견된 중석기문화 최하층인 제23층에서는  $9190+80$  BP(LE-763)와  $9045+210$  BP (IM-243), 최상부 중석기문화층인 제8층에서는  $5900+70$  BP(LE-676)의 탄소연대측정치가 얻어졌으며, 그 사이의 여러 문화층도 연대측정이 이루어졌다. 그렇지만 이 유적에서 얻어진 연대측정치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 지역의 거의 모든 다른 유적들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약간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석기문화층 상부의 제5층에서는  $9400+90$  BP(LE-896)의 연대가 얻어진 것이 그 단적인 예인데, 이러한 현상은 이 반영구성 동토지대의 특수한 환경조건, 즉 고대의 유기물이 부식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가 후대의 퇴적층에 재퇴적되는 일이 일상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일 것이라 여겨진다(Yi and Clark 1985).

그러나 다행히도 중석기문화층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층위와 연대의 역전현상은 그리 심하지 않아, 중석기문화층들을 1천년 단위로 묶어 볼 수 있다. 즉, 제23층에서는 9000 BP대의 연대가 얻어졌지만, 제20-15층에서는 8000 BP대, 제14-12층에서는 7000BP대, 10층과 9층에서는 6000 BP대의 연대가 얻어졌다. 이러한 측정결과에서 이 유적의 퇴적층 역시 각종 동토 지질교란 현상의 작용을 받기는 했으나, 그것이 절대연대 측정치의 판독에 끼치는 영향의 정도는 둑타이문화의 유적에서와 같이 심한 정도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아마도 후빙기의 기후호전으로 solifluction, ice-wedge formation 등의 동토지질교란 현상의 정도가 많이 약화되어 퇴적층 내에 포함된 각종 물질의 역전현상이 층서적 질서를 뒤엎을 정도로 크게 일어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일 것이다.

벨하치제1유적 및 기타유적에서 얻어진 각종 연대측정치에 기초, 모차노프는 숨나긴 문화가 대략 8000 BP대에서 4000 BP대에 걸쳐 야쿠티아를 중심으로 쿠코트카 일부 지역에 퍼졌다고 주장한다(Mochanov, Fedoseeva 1975 ; Mochanov 1975,1980). 숨나긴문화의 유물상의 특징은 벨하치제1유적의 조사내용에서 잘 드러나고 있듯, 7000 BP대까지는 연바이칼지방의 경우와 유사하게 후기구석기문화의 요소가 큰 변화없이 계속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 즉, 이른 시기의 유물군은 특징적으로 노지를 중심으로 각종 동물뼈와 함께 발견되는데, 복합도구로 사용한 골각기와 세석인을 위주로, 세석 제작의 부산물인 세석인석핵, 스크레블로 및 소량의 자갈돌 찍개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

나 6000 BP대의 문화총이나 유적에서부터 세석인의 비중은 감소하는 대신 스크레블로 및 대형 도끼류들이 크게 늘어난다. 특히 사용 숨나긴문화 후기의 지표유물로 간주되고 있는 한 특정한 형태의 도끼는 이후 신석기시대에도 계속 발견되는 것으로서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물론 숨나긴문화 유물군의 구성이 모든 유적에서 동질적인 것은 아니다. 유적의 위치에 따라 사용가능했던 생계자원의 차이가 있었음을 반영하듯, 예를 들어 오후츠크해변의 암카유적에서는 세석기와 편각기가 상대적으로 늦은 시기에 유행하고 있다(Mochanov 1972).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술한 도끼와도 같은 특징적인 유물의 존재는 이 유적을 동일한 문화권으로 묶는 중요한 단서로 다루어지고 있다.

### 3. 기타 지방

연해주지방의 중석기유적의 대표격인 우스티노프카유적은 동해로 흐르는 소하천변의 하상비고 10-12미터에 위치한 단구층 내에서 발견되었다. 이 유적은 63년과 64년에 걸쳐 오클라드니코프에 의해 처음 발굴되었으며, 80년대에 다시 조사되었다(Okladnikov 1966; Okladnikov, Derevyanko 1973). 이곳에서는 각종 형태의 스크레블로 빛 대형 바뀐석기와 석핵 및 도끼류가 발견되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관심을 끄는 사항은 일부 세석인 석핵의 형태가 한반도에서 발견된 것과 유사하다는 점이다(Yi and Clark 1985). 한편 하바로프스크 교외에서 발견된 오시노프카유적은 1960년과 63년 두 차례에 걸쳐 조사되었다(Derevyanko 1983). 여기에서도 한반도에서 발견되는 것과 유사한 세석인 석핵이 발견되었으나, 유물군의 전반적인 구성은 대형 박편도끼가 우세하여 우스티노프카 유적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이 두 유적은 지리적으로 한반도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관계로 관심이 가는 유적이나, 연대측정도 아직 실시되지 않았고 자세한 내용 역시 보고되지 않았다.

사할린의 중석기유적인 임친제1 및 제2유적은 임친강변의 6-7m 단구내에서 1965년 발견되어 1972년 발굴되었다(Vasilevskii 1971, 1973). 제1유적에서는 두께가 각각 25cm, 28cm인 중석기문화총이 둘 확인되었으며, 여기에서 약 700m 떨어진 제2유적에서는 하나의 문화총만이 확인되었다. 임친유적에서는 시베리아 대륙의 다른 유적들과 유사한 각종 유물들이 발견되었지만, 특징적인 것은 아마도 화살촉으로 사용되었으리라 생각되는 각종 투사촉(projectile point)이 상당수 발견되었다는 점이다. 이를 유물의 형태는 매우 정제되어 있는데, 유적을 조사한 바실례프스키는 이를 기준으로 유적의 연대가 상당히 늦은 시기일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사할린 남부에서 발견된 타코예 제2유적에서는 얇은 박편의 한쪽 측면을 집중가공한 소위 일본에서 나이프형 석기라 불리는 것들과 유사한 유물들이 발견되고 있는바, 일본열도와의 깊은 문화적 관계를 시사해 준다.

캄차카반도에서 발견된 우슈카유적은 여러 개의 지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지점에서는 최고 다섯개에 이르는 문화총이 발견되었는데, 이곳의 중석기문화는 후병기 이래의 쿠릴열도 및 알래스카로의 인간이주와 관계되어 북미의 학자들이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유적이다. 여기에서는 특히 수혈주거지 내에서 고래를 비롯한 각종 해양 포유동

물의 뼈가 발견됨으로써, 이러한 해양자원의 이용이 영구정주생활을 가능하게 해주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비록 이 유적에서 8000 BP대의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치가 얻어졌지만, 이 연대와 문화층, 특히 수혈주거지가 발견된 문화층과의 관계는 명확하지 않고, 각 문화층의 충위적 구분 역시 모호한 상태이다.

## V. 동부시베리아 중석기문화의 성격에 대한 가설적 설명

오늘날 시베리아의 환경이 인간이 거주하기에 매우 불리한 조건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인간은 현재보다도 모든 환경조건이 훨씬 나빴던 플라이스토세 말기에 이미 이 지역을 점유하며 살고 있었다.

중석기시대가 시작되기 직전의 기원전 1만년대의 최후빙하기의 최후빙기 동안 북위 60도선 이북의 지역은 대부분 빙하에 덮여 있었으며, 그 남쪽 지역 역시 주빙하환경이 지배하는 혹독한 조건의 툰드라지대였다(Tseitlin 1979). 이러한 인간거주에 불리한 환경 조건은 빙하의 후퇴와 더불어 완화, 개선되었으나, 기후의 호전은 세계 대부분의 지역 보다 훨씬 더디게 진행되었고, 전술하였듯 오늘날과 같은 기후 및 식생대가 안정된 모습으로 자리잡게 된 것은 대체로 아틀란틱기 이후의 일이다. 아마도 시베리아 중석기문화 등장의 배경과 그 성격을 이해함에 있어서, 이러한 후빙기 초의 환경조건은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중석기시대의 문화적 성격은 후기구석기 최말기와 유사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플라이스토세에서 홀로세로의 전이, 즉 구석기에서 중석기문화로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지역인 동부시베리아에서 알려진 플라이스토세 말에서 홀로세 초에 걸쳐 퇴적된 여러 문화층으로 구성된 유적에서는 그러한 뚜렷한 문화적 전이현상을 볼 수 없다. 절대연대 측정으로 플라이스토세에 속한다고 판단된 문화층, 즉 후기구석기시대로 편년된 문화층에서 발견되는 유물들은 개개유물의 성격과 전체유물군의 구성에 있어서 홀로세 초기에 편년된 중석기시대 문화층에서 발견되는 것들과 기본적으로 동질적인 내용이다. 이는 다시 말하자면 유물만으로는 구석기시대와 중석기시대의 구분이 불가능함을 뜻하는데, 따라서 퇴적층이 동토 지질교란 현상으로 심하게 변형된 경우 주어진 유적의 문화기적 분기가 매우 어려운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사정은 시베리아지방의 중석기문화는 구석기문화의 연속으로서 지속되었다는 점에 가장 큰 특징이 있음을 뜻한다. 물론 다른 지역의 경우에도 중석기 초기단계와 구석기 후기단계의 문화적 차이가 항상 뚜렷한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이 지역의 경우 문제는 그러한 구석기적 특징이 토기의 등장 이전까지 계속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문화 내용 중 석기만을 갖고 본다면, 매우 구석기적인 요소와 특징들이 신석기단계에서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 지역의 중석기문화가 구석기적 요소의 지속현상으로 특징지워진다는 것은, 전술한

후빙기 초기의 기후조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즉, 이러한 문화진화의 유보현상은 물질문화의 구성성격 및 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조건과의 적응적 상관관계라는 문화변화과정에 대한 일반론적 차원의 문화생태학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적응의 개념을 매개로 하는 생태학적 입장에서 동부시베리아에서의 후빙기 초기의 적용양식을 설명하려 한다면, 인구의 급격한 증가나 이입 혹은 외부로부터의 신기술의 도입과도 같은 문화진화유발동인이 배제된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플라이스토세의 기후조건과 크게 다르지 않은 조건이 계속되는 한, 플라이스토세의 기술수준과 내용, 즉 구석기단계의 문화가 후빙기에 들어와서도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가정을 세울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가정을 다시 풀어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플라이스토세 최말기의 빙하기 극성기에도 빙하에 대하천 계곡에서는 직접 덮여 있지 않던 시베리아 남부지방이나 내륙시베리아의 대하천 계곡에서는 인간의 거주가 가능했었다. 그러나 이런 곳의 식생조건은 오늘날과 같은 삼림지대가 아니라 주빙하환경의 툰드라지대였기 때문에 여기에 살 수 있었던 인간집단의 규모는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환경적 제약조건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적 인구증가의 규모를 제한하는 요인임과 동시에, 이에서 비롯된 구득가능한 생계자원 규모의 한계라는 제약은 외부로부터의 신주민의 이입을 억제하는 방어기제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조건은 빙하기의 종식과 더불어 기후의 온난화가 시작되었더라도 기후의 호전이 매우 더디게 진행되어 생계자원을 비롯한 제반 환경조건이 급격히 변화하지 않은 이 지역에서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즉, 후기구석기 단계의 물질문화와 인구규모 및 기타 사회문화조직과 구성은 주어진 사회문화체계의 존속과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체계유지요인으로서의 환경조건이 변화하지 않은 여전 하에서는 과거의 상태대로 계속 유지되었을 것이다.

비록 시베리아와 인접한 지역에서 후빙기의 도래와 함께 환경조건이 호전되어 인구의 급격한 증가 내지 문화요소의 급속한 진화가 유발되어 외부로의 인구방출이나 문화요소의 전파와도 같은 문화적 확산현상이 시작되었다는 치더라도, 시베리아지방이 안고 있는 불리한 환경조건 내지 이에서 비롯된 문화진화의 제한조건으로, 이러한 외부로부터의 영향은 이 지역의 사회문화변동에 큰 변수로 작용하지 못했으리라고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문화진화의 동인으로서의 외부로부터의 영향은 시베리아의 경우에는 중요한 변수로 상정할 수 없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이러한 가설적 설명은 시베리아 후빙기 초기의 문화현상을 일종의 “역전된 환경포위(reversed environmental circumscription)” 내지 “주변부적 고립현상(marginal isolation)”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그러한 주변부적 문화영역의 정확한 경계의 범위나 그 변화과정 혹은 영역의 경계성을 유지시켜 준 각종 자연적, 문화적 기제가 정확히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무엇이라고 꼬집어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와 관계되어 구석기시대 아래의 수렵경제의 주요한 사냥대상이던 대형포유동물, 그중에서도 특히 밤모스, 텁코뿔소, 순록 등 몇몇 주요 종의 분포 및 이들의 서식을 제한하는 생태

적 조건의 변화과정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으리라 여겨진다.

한편, 비록 후기구석기에서 중석기에 이르는 동부시베리아지역에서의 문화과정이 기본적으로 외부와의 상호작용이 최소화된 상태에서의 안정적 평형상태(stable equilibrium)의 지속현상으로 여길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시기는 북미대륙으로의 인간이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방출현상이 구체적으로 인구-환경 사이의 평형관계가 어떻게 파괴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직은 알 수 없다. 그러나 구석기시대 말에서 중석기시대에 걸쳐 보다 남쪽지방에서 시베리아쪽으로의 문화유입 혹은 주민이주의 적극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것은 인구증가나 인구유입으로 인한 인구압에 의한 결과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특별히 인구압과 관계된 요인을 생각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이러한 인구방출현상은 이 지역의 수렵채집집단이 동토지대라는 특수한 환경조건에 대한 전문적 적응으로 유지되던 사회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즉, 구석기시대 이래 동부시베리아의 수렵채집집단은 빙하기적 자연조건이라는 매우 취약하여 특수한 환경에 대한 전문적 적응으로 유지되던 사회였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생계자원의 획득 양식이 자원 그 자체의 밀도나 분포의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대응하지만, 그러한 대응은 매우 제한된 범위내에서만 가능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인간의 주요생계자원이던 맘모스나 텔코뿔소 혹은 순록과 같은 대형표유동물의 주식원인 이끼류의 분포는 약간의 온도변화에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이러한 동물들은 매우 취약하게 유지되는 영구동토지대의 생태계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인간집단 역시 약간의 기후변화에도 큰 영향을 입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렇다면 시베리아에서 북미대륙으로의 인간이주란, 시베리아의 기후조건이 매우 느린 속도로 기기는 하지만 서서히 호전되며 취약한 생태계 평형질서의 파괴와 더불어 생계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미처 변화하는 생태조건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을 갖추지 못했던 구석기문화수준의 이 지역 주민들이 취하게 된 적응전략의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중석기에서 신석기로의 전이와 관계되어 관심을 끄는 사항은 이곳의 신석기문화는 토기의 등장이라는 사실을 지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토기를 제외한 신석기시대의 물질문화요소는 중석기 단계의 수렵채집으로 경제생활의 양상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시베리아의 신석기문화 초기단계가 영구정착생활을 누렸다고 볼 수 있는 증거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생계자원이용을 위한 계절적 이동은 아직까지 보편적이었던 듯하다. 토기라는 새로운 문화요소는 새로운 종류의 저장용기의 발생 이상의 의미는 없는 듯하다. 아틀란티기 이래의 환경의 호전과 더불어 새로운 생계자원의 양과 종류가 늘어나며, 새로운 적응의 적수가 발생하였을텐데, 그러나 그러한 변화에 대한 인간집단의 대응은 아직 영구정착생활을 보장할 만한 것은 못되었던 듯하다. 사실 시베리아지방에서의 적극적인 정착생활의 증거가 널리 발견되는 것은 청동기단계에서의 일이라고 여겨진다. 토기라는 새로운 문화요소를 기준으로 중석기와 신석기를 구분하는 것은 연구의 편의를 위해 의미있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토기의 등장을 전후해 문

화전반에 걸친 큰 변화는 간지되지 않는바, 이러한 매우 느린 변화야말로 환경적 제약으로 인해 야기된 구석기시대 아래의 이 지역의 문화진화과정의 중요한 특징일 것이다.

### 〈참 고 문 헌〉

김원용

- 1986 『한국고고학개설』, 서울 : 일지사.
- Aksenov M. P.
- 1974 *Mnogosloinii archeologicheskii pamyatnik Makarovo II*. Irkutsk: Izdatel'stva Irkutskogo Universiteta.
- 1980 *Archeologicheskaya stratigrafiya iposloinoe opisanie inventarya*. Irkutsk: Izdatel'stva Irkutskogo Universiteta.
- 1982 *Pogrevenie <<Khinyskogo>> tipa na Verkhnei Lene (R'twinka I)*. Irkutsk: Izdatel'stva Irkutskogo Universiteta.
- Aksenov M. P., Lynsha V. A., Shun'dov M. V.
- 1975 *Drevnaya istoriya narodov yuga Vostochnoi Sibiri*. Irkutsk: Izdatel'stva Irkutskogo Universiteta.
- Aksenov M. P., Medvedev G. I.
- 1982 *Paleolit i mesolit yuga Sibiri-sbornik nauchnykh trudov*. Irkutsk: Izdatel'stvo Irkutskogo Universiteta.
- Aksenov M. P., Shm'gun P. E.
- 1974 *Shishkino* II. Irkutsk: Izdatel'stva Irkutskogo Universitet.
- Bader, N. O., Guryna N. N., Dolukhanov P. M., Kol'zov L. V., Cerikov Yu. B., Sorokin A. N., Starkov V. F., Telegin D. Ya., Timofeev B. N., Zereteli L. D.
- 1989 *Mesolit SSSR*. MOskva : Nauka
- Derevyanko A. P.
- 1983 *Paleolit Dal'nego Bostoka i Korei*. Novosibirsk: SO AN SSSR.
- Dumond, D.
- 1977 *The Eskimos and Aleuts*. London: Thames and Hudson.
- Georgievskii A. M., Medvedev G. I.
- 1980 *Mesoliticheskaya stoyanka Zari-Debiza*. Irkutsk: Izdatel'stvo Irkutskogo Universiteta.
- Goryunova O. I.
- 1978 *Rannie kompleks'Mnogosloinogo plsekeniya It'rkhei*. Irkutsk: Izdatel'stvo Irkutskogo Universiteta.
- Lezhnenko I. A.
- 1980 *Mesolit Berkhnego Priangar'ya*. Irkutsk: Isdatel'stvo Irkutskogo Universiteta.

- Lezhnenko I. A., Medvedev G. I., Mikhnyuk G. N.  
 1982 *Paleolit i mesolit yuga Sibiri*. Irkutsk: Izdatel'stvo Irkutskogo Universiteta.  
 Medvedev G. I.
- 1980 *Mesolit Berkhnego Priangar'ya*. Irkutsk: Izdatel'stvo Irkutskogo Universiteta.  
 Medvedev G. I., Georgievskii A. M., Mikhnyuk G. N., Sabel'ev N. A.
- 1971 *Stoyanka Angaro-Bel'skogo raiona-Mesolit Berkhne Priangar'ya 3*. Irkutsk:  
 Izdatel'stvo Irkutskogo Universiteta.  
 Medvedev G. I., Mikhnyuk G. N., Shm'gun P. E.
- 1975 *Mesolit yuga Bostochnoi Sibiri*. Irkutsk: Izdatel'stvo Irkutskogo Universiteta.  
 Mochanov Yu. A.
- 1966 *Drevneishie kul'tury Ameriki. Sovetskaya Etnographiya 4*.
- 1969 *Mnogosloinaya stoyanka Bel'kachi I i periodizatsiya kamennogo bekav Yakutii*.  
 MOskva: Nauka.
- 1972 *Arkhеologicheskie otkrytiya*. Moskva : Nauka.
- 1977 *Drevneishie etapy zaceleniya cheolovekom Cевero-Vostochnoi Azii*. Novosibirsk: SO  
 AN SSSR.
- 1988 *Arkhеologiya Yakutii*. Yakutsk: Takutskiy Universitet.  
 Okladnikov A. P.
- 1951 *Drevneishie arkheologicheskie pamyatniki Krasnovodskogo p'-ba*. TYUTAKE 2.
- 1955 *Istoria Yakutskoi ASSR*. Moskva: Nauka.
- 1966 *Verkhnepaleoliticheskoe i mesoliticheskoe bremya*. Moskva: Nauka.  
 Okladnikov A. P., Derevyanko A. P.
- 1973 *Dalekoe proshloe Primor'ya*. Vladivostok: Nauka.  
 Svinin V. V.
- 1980 *Pozdnemezoliticheskaya stoyanka Licikha*. Irkutsk: Iszatel'stvo Irkutskogo Universiteta.
- Tseitlin S. M.  
 1979 *Giologii Severnoi Azii*. Moskva: Nauka.
- Vasilyev, S. A.  
 ms The late palaeolithic culture sequence in northern Asia.  
 Vasilyevskii R. S.
- 1971 *Imchin-Treynie Kul'tury Sibiri i Tikhookeanskogo vasseina*. Novosibirsk: SO AN  
 SSSR.
- 1973 *Dokeranicheskie kompleksy Sakhлина i ik'y korrelyatsiya s pamyatnikami sopredel'nykh oblastei-DRevnie Kul'tury Sibiri i Tikhookeanskogo vasseina*. Novosibirsk:  
 SO AN SSSR.
- Yi, Seonbok and G. A. Clark

1985 The "Dyuktai Culture" and New World origins. *Current Anthropology* 26(1): 1-20.

## Palaeolithic-Neolithic Transition in East Siberia -with Speical Emphasis on Chronostratigraphy

Seonbok Yi

While research into Mesolithic of Siberia began in the late 19th century and approximation of culture-historical chronostratigraphic subdivisions of the period began to appear during 1960s, most of the vast territories of eastern Siberia remain uninvestigated until today.

The condition which hinders development of Mesolithic research is exacerbated by limitations in methodological and theoretical considerations in approaching early Holocene archaeology.

Transbaikalia and mid-Lena River Basin are the most-cited areas for Mesolithic research, and only a handful of sites are reportedly pertaining to the period in the territory of the Siberian Far East and the Maritime region. Mesolithic industries of Transbaikalia are often treated as containing a number of distinct "cultural types", including Badai, Verkholenskaya, Kanskii and Baikal Type. Differences among them are usually found in the presence/absence of certain tool and debitage types, which therefore may or may not allow interpretations other than the one based on the assumption of "cultural" or "ethnic" differences.

Interesting finds made in the mid-Lena Basin are usually treated in collectivity as representing the "Sumnagin Culture", following the name of its type locality. While researchers tend to regard Mesolithic industries of each separate region as containing a number of variants among them, the data indicate strong morphological and technological similarities with those from the terminal Pleistocene context. Such continuity may reflect that the mode of adaptation had little changed during the early Holocene when compared to terminal Pleistocene.

Geological and faunal evidence strongly suggests that the climatic conditions of the region remain extremely severe during the first several millennia of Holocene. Thus one might be allowed to expect little or no change in the mode of adaptation among the ancient hunter-gatherers of the region since the Sartan times. Such conditions also might have not allowed any large-scale population movement into the region, while effectively delimiting population growth and group expansion among the occupants. As such, concept of "reversed circumscription" or "marginal isolation" may well be found applicable to explain the character of Siberian Mesolithic.